

홈 > 뉴스 > 전국

남해군, 올해 마지막 도르프 청년마켓, 21일 열려

2024년 12월 20일 (금) 15:23:25

이서준 기자 ✉ newsm.0212@gmail.com

(뉴스메이커=이서준 기자) 올해 마지막 '도르프 청년마켓'이 12월 21일 토요일 개최된다. 독일마을광장에서 개최되는 도르프 청년마켓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남해군·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The poster features a festive winter theme with a blue sky, snowflakes, and red poinsettias. The main text is '2024 도르프 청년마켓 8회차 OPEN' in large, bold, colorful letters. Below the title, it specifies the date and time: '일시 | 2024. 12. 21. (토) 11:00 ~ 16:00' and the location: '장소 |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광장'. The bottom of the poster includes logos for the organizing and sponsoring organizations: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GYEONGNAM', '남해군', and '남해관광문화재단'.

남해를 대표하는 지역셀러뿐만 아니라 김해·하동·울산·사천 등 총 5개 지역, 21팀의 다양한 셀러들이 독일마을광장으로 모인다.


크리스마스 트리 및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마켓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역시 다른 회차들과는 다르게 구성된다.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스노우볼 또는 모빌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먹거리 부스 역시 풍성하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마켓을 즐길 수 있도록 붕어빵, 오뎅, 꼬치, 빵쇼, 프레첼 등 겨울 먹거리가 가득하다. 남해군 삼동면에서 수확된 참다래도 구매할 수 있다.

공연진으로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수노'와 여름밤의 푸른 감성을 담은 밴드 '여름밤잔디', 음악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아셀앙상블'이 출연해 2024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8회 차를 맞이한 도르프 청년마켓이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며 "2025년에도 지속가능한 특화관광상품으로써 독일마을광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도르프 청년마켓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